

1960년대 한국 스릴러 영화에 대한 소고 : 김묵 <급행열차에 타라>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정예인

목차

1. 들어가며
2. 제작 과정 : 할리우드라는 종착지, 일본이라는 경유지
3. 서사의 혼종성 : 틈입하는 한국이라는 지역(성)
4. (범죄) 스릴러 영화의 수용
5. 나가며

1. 들어가며

- 미국과 일본을 경유하여 한국에 수입, 번안된 영화 <급행열차에 타라>(1963)에 담긴 1960년대 전반기 한국 스릴러 영화의 전형성을 분석
- 이른바 ‘초국적’ 혹은 ‘외래의’ 장르로 인식된 스릴러가 한국 사회에 안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혼종적 측면을 조명
- 필름이 없는 영화라는 한계 : 영화 텍스트를 둘러싼 외부적인 상황, 녹음대본 분석

1. 들어가며

스릴러의 정의

- “스릴러는 관객의 흥분과 긴장감을 유지시키며 최종적 해소를 자연함으로써 관객에게 공포와 전율을 주는 장르” (송효정, 「전율과 공포의 협주, 스릴러 영화」, 『영화의 장르, 장르의 영화』, 르몽드코리아, 2018, 83쪽)
- “서사의 측면에서 과학, 논리, 합리적 이성을 근간으로 하고 있고, 스타일의 측면에서 모더니즘적이며, 사회반영 및 비판의 기능을 하며 근대화의 모순”을 드러내는 장르
(이선주, 「열정과 불안 : 1960년대 한국영화의 모더니즘과 모더니티」, 중앙대 박사학위논문, 2012, 58쪽)
- 이선주는 스릴러를 고정된 관습으로 규정된 고전적 장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혼종적 장르로서, 멜로드라마나 느와르처럼 다양한 하위 장르들과 주제들을 가로지르는 일종의 ‘양식 mode’이나 ‘스타일 style’로 볼 것을 제안” (이선주, 「‘할리우드와 그 너머’」, 『대중서사연구』 22(1), 2016, 5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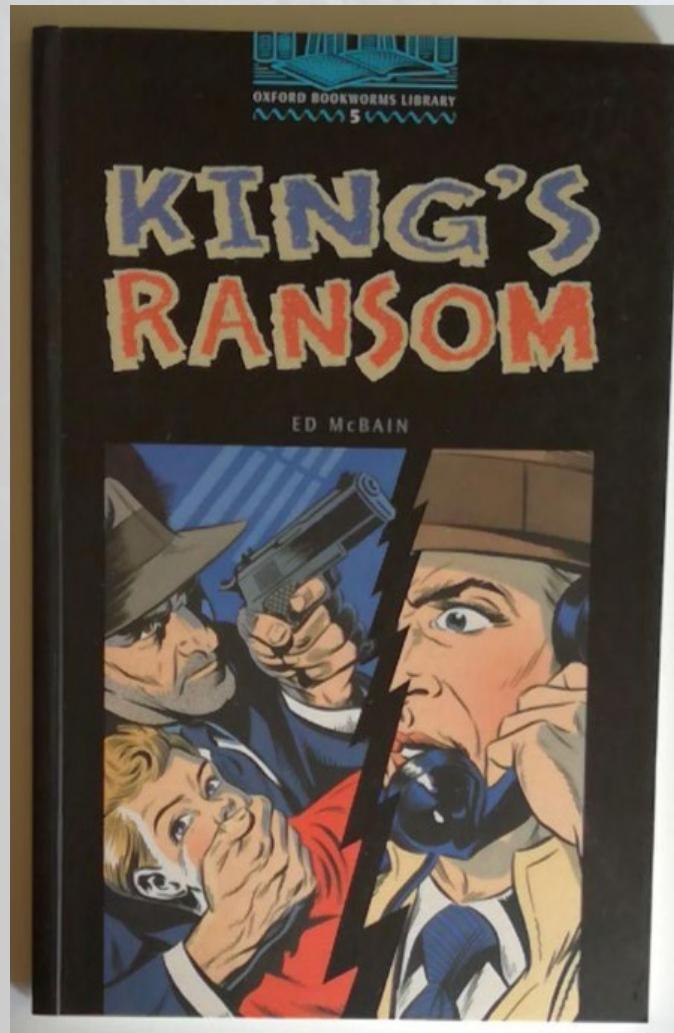
2. 제작 과정 : 할리우드라는 종착지, 일본이라는 경유지

「정확한 「쇼트」와 「터치」 「急行列車에 타라」」, 『경향신문』, 1963.07.29

美 작가 ‘에드 맥베인’의 추리소설 〈‘킹’의 몸값〉이 원작. 일본에서도 이를 영화로 만든 일이 있다. 일본 영화명은 〈천국과 지옥〉인데 〈급행열차에 타라〉(김동오 각본)는 원작에서 취재하는 데 그친 〈천국과 지옥〉하고 대동소이. 시원스럽게 이야기가 뽑힌 것도 무리가 아니다. 영화만 가지고 본다면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추리영화 가운데서 제일 재미있고 말쑥하다. 그러나 원작보다 일본 ‘시나리오’를 더 많이 옮겨 놓았다는 사실 때문에 아무리 재미가 있어도 박수를 할 순 없다. (중략) 돈과 어린이를 교환하는데 급행열차를 이용하는 ‘시퀀스’는 압권. 김묵 감독의 정확한 ‘쇼트’와 선명한 ‘터치’는 외화를 보는 느낌을 준다.

- 에드 맥베인(Ed McBain)의 ‘87분서 시리즈’ 중 『킹의 몸값(King's Ransom)』(1959)
- 구로사와 아키라(黒澤明)의 영화 〈천국과 지옥(天国と地獄)〉(1963)
- 김묵의 영화 〈급행열차에 타라〉(1963)

2. 제작 과정 : 할리우드라는 종착지, 일본이라는 경유지



2. 제작 과정 : 할리우드라는 종착지, 일본이라는 경유지

『한국속의 일본을 고발한다: 해적판』, 『신동아』, 1964.11, 86-95쪽,

“일본 ‘시나리오’나 원작의 표절은 ‘시나리오’ 작가의 빈곤으로 인한 오랜 풍습이지만, 그런대로 표절의 초기에는 그것이 “뒤집는다”라는 은어로 표시될 정도로 요령을 앞세운 것이었다. 줄거리를 바꾼다든가, 인물을 추가한다든가 – 이를 테면 **요령껏 하여 ‘한국적’(?)인 것으로 만들어 놓아 딱히 증거를 잡히지 않으려고** 머리를 짜냈었다. (중략) 일본 ‘시나리오’ 작가협회가 낸 〈연감대표 시나리오집〉들이나 〈일본 시나리오작가 전집〉 또는 일본영화잡지인 〈시나리오〉 〈영화평론〉 〈영화예술〉 〈키네마순보〉 등에 실린 일본 ‘시나리오’들이 동이 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일본 ‘시나리오’ 하나가 3, 4편의 한국영화로 되어 나오는 예가 있게 되었다. 그러나 자료의 한계를 느끼게 되어 방법이 달라졌다. **일본의 모모한 영화사 제작부와 교섭하여 현재 촬영중인 영화의 대본(영화지상에 발표되기 전의 것)을 구입**하는 일이 있는가 하면, 일본을 드나드는 제작자는 그 ‘트렁크’ 속에 표지를 뗀 대본을 한 뭉텅이씩 들고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 속에는 일본제작사 창고에서 잠자고 있던, 오래된 작품을 비롯하여 최근 것까지 가지가지가 망라되어 있다. 공항세관에서 이것이 적발된 경우도 몇 번 있었다. 김포공항에 있는 한 세관원에 의하면 매달 한 ‘트렁크’씩 일본에서 보내주는 대본을 찾으러 오는 국산 영화업자도 있다는 것이다.”

2. 제작 과정 : 할리우드라는 종착지, 일본이라는 경유지

구로사와 아키라(黒澤明)

- 1950년대 세계적인 영화감독
 - <라쇼몽 羅生門>(1950)
 - : 1951년 베니스영화제 황금사자상
 - <칠인의 사무라이(七人の侍)>
 - : 1954년 베니스영화제 은사자상
 - <숨은 요새의 세 악인(隠し砦の三悪人)>
 - : 1958년 베를린 국제 영화제 은곰상



2. 제작 과정 : 할리우드라는 종착지, 일본이라는 경유지

1960년대 초반 한국 영화계의 과제

- 1) 오리지널 시나리오의 부족 2) 급변하던 세계의 영화 기술 동향(컬러, 시네마스코프로의 이행)
- 이 무렵 스릴러는 “새로운 서사와 영화미학에 대한 한국영화계의 관심과 이전의 한국영화에서는 볼 수 없었던 실험적인 시도와 숙련된 영화기술”을 보여줄 수 있는 장르이기 때문에, 한국영화 관계자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으로 인식

(이길성, 「1950년대 외국 스릴러 장르의 한국적 수용양상」, 『영화연구』 45, 한국영화학회, 2010, 253-254쪽)

- 1950년대 후반~1960년대 초반은 외화를 선호하는 관객의 구미에 맞추어야 하는 과제
- ‘느린 템포’가 문제였던 한국영화에 있어 ‘스피디한 템포’, 긴박감 있는 화면구성 등을 구사할 수 있는 스릴러 영화는 새로운 대안으로 자리 잡음

2. 제작 과정 : 할리우드라는 종착지, 일본이라는 경유지

1960년대 일본 영화계의 위치

- 아시아 영화계에서 기술적 우위를 점했던 일본
- “회원국 간 영화산업의 공동증진, 영화의 기술 및 예술성 향상, 영화를 통한 문화교류 촉진 및 참가국 간의 친선도모 등을 주요 목표”로 삼은 아시아영화제서 촬영상, 녹음상 등 기술상은 주로 일본에게 수여
- 1962년 제9회 아시아영화제 기간 동안 '아시아영화기술연구회' 발족 문제 협의, 일본영화기술자협회
컬러 기술 강연회 등 개최

(공영민, 「아시아영화제를 통해 본 한국영화 : 1950~60년대 해외진출을 중심으로」, 중앙대 석사학위논문, 2009)

- 1950년대 중반 이후 “한국영화가 추구하는 근대화의 모델이자 영화산업의 기술적 장르적 제도적 준거”
였던 미국영화 (이선주, 「할리우드와 그 너머」, 61쪽)

2. 제작 과정 : 할리우드라는 종착지, 일본이라는 경유지

「영화에 탐정 추리 봄」, 『동아일보』, 1962.8.24. 5면

방송의 ‘골든 아워’에 추리극이 등장하기 시작하더니 연쇄반응으로 영화가에 탐정활극(미스텔리) 또는 추리극 ‘봄’이 일고 있다. (중략) 엄격한 의미에서 우리나라 ‘스릴러’ 영화는 드물고 탐정활극에다 ‘스릴러’를 얼버무린 것들이 ‘스릴러’로 행세하는 경향이 보이지만, 그 내용을 보면 ‘스파이’나 ‘갱’이 악역으로 되기 마련. 한국의 경우 ‘스파이’ 탐정극이 많다. (중략) **‘타이밍’** (시간)계산이 철저해야 하고 5명 그 밖의 촬영상의 난점도 허다하기 때문에 영화촬영기술에는 공부가 많이 된다는 게 이 종류의 영화. (중략) 결국 이러한 것이 자주 만들어지는 까닭은 ‘그게 그거’의 한결같은 ‘멜로드라마’에 식상한 관객들의 입맛에 새로운 자극을 주려는 의도에서 기인된 것 같다.

2. 제작 과정 : 할리우드라는 종착지, 일본이라는 경유지

「예원(芸苑)의 새얼굴 참신한 감각」, 『조선일보』, 1959.08.09.

(전략) 아무래도 자기에게는 「액션·드라마」가 맞는 것 같다는 그는 사실 **우리나라** 감독에게서는 드물게 보는 박력있는 묘사의 소유자인데 앞으로 본격적인 「스릴러」를 감독하고 싶다고 한다. (중략) 그는 현재 우리나라 신인감독으로선 제일선(第一線)에서 활약하고 있으며 「칸느」나 「베니스」의 「그랑·뿌리」를 가져올 가능성을 지닌 감독의 하나임에는 틀림없다.

이영일, 「62년의 한국감독들」, 『국제영화』, 1963.1.

나는 김묵이 여지까지의 작품 태도를 재검토해서 좀더 스릴러 영화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를 해줬으면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프로이트나 융을 비롯해서 현대사회의 구조, 분석, 그리고 추리문법의 번역적인 수련이 있어야 되겠다. 이 방면은 거의 김묵 혼자서 독주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권고해둔다.



3. 서사의 혼종성 : 틈입하는 한국이라는 지역(성)

김목 <급행열차에 타라>(1963)의 줄거리

대재벌인 윤석호의 가정에 어린이 유괴 사건이 발생하는데, 막상 유괴된 어린이는 그의 아들이 아닌 운전수의 아들이었다. 범인의 착각이었던 것이다. 그는 비록 유괴된 어린이가 운전수의 아들이었을 망정 범인의 요구대로 자기 재산의 전부를 내놓고는 어린이를 찾는다. 운전수는 자기 아들 때문에 파산한 주인을 대할 수가 없던 중 사력을 다해 경찰 수사에 협력한 끝에 마침내는 유괴범을 체포하는데 성공한다. (KMDB)



	소설『킹의 몸값』	영화〈천국과 지옥〉	영화〈급행열차에 타라〉
배경	뉴욕을 모델로 한 가공의 도시 아이솔라	일본의 대도시 요코하마	한국의 서울 성북동
화자	유괴범들(주범 1명, 공범 2명), 피해자(자본가 '킹')	내셔널 슈즈 회사 임원 곤도, 형사들	고려피혁의 전무 윤석호, 형사들, 그 외 인물들
범인 / 처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의 이유 : 금전 - 잔혹한 범죄자 사이(주범) - 생계를 위해 범죄를 저지르는 에디, 남편인 에디의 죄를 못 본 체한 캐시 - 유괴된 아이(제프)에게 호의를 베푼 캐시, 그의 남편 에디는 체포x / 주범만이 체포 후 공적 처벌 - 처벌 : 투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의 이유 : '지옥'에서 올려다 본 '천국'을 향한 불만 - 인턴 의사 다케우치 긴지로 (주범), 금전적인 이유(마약)로 범죄에 가담한 공범 2인 - 공범 2명은 다케우치에 의해 살해 - 처벌 : 사형 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의 이유 : 윤석호를 위기에 빠뜨린 후 회사 사장 자리에 오르고자 했기 때문 - 윤석호의 친구 김기복(주범), 금전을 이유로 가담한 공범 1명 - 처벌 : 확인 불가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7분서 시리즈' 중 예외적으로 '형사'가 아닌, '유괴범과 피해자(자본가)'를 중심으로 - 금전과 생명 사이에 망설이다, 몸을 던져 범인을 체포한 자본가를 현대의 영웅으로 묘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로사와 아키라의 기술적인 면모 : '팬포커스', '롱테이크' → '집단적인 군중상' - 일본의 격차사회와 사회 체제와 연관된 윤리의 문제를 제재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묵의 주특기였던 '액션'의 성격이 추리, 실내극 측면보다 강화된 경향 → 신파와의 결합 - 형사들 : 일본 영화에서 초점화된 '과학수사'보다 '미행' '심문'에 주력. 권위적 재현

3. 서사의 혼종성 : 틈입하는 한국이라는 지역(성)

1	방송국 전경 INSERT	
2	아나	(한씨와 아나운서 마이크 앞에 앉는다)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국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3	아나	「요즘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어린이 유괴 사건이 서울 시내에서 또다시 일어 났습니다. 즉 성북구 성북동 390번지에 사는 한명수 씨의 장남 당년 10세 되는 길수군이 지난 5월 5일 유괴된 채 약 20일간 아무런 소식 없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4	아나	「그럼 길수군에 부친되는 한명수씨가 유괴범 및 전국 청취자에게 드리는 육성을 직접 들으시겠습니다.」
5	안테나 INSERT	
6	아나	「우리 길수를 데려가신 선생님 저는 지금 하느님께 기도 드리는 마음으로 길수를 돌려보내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드립니다 길수를 데려가신 선생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 아들 길수를 돌려 보내 주십시오 제게 무슨 죄가 있다면 무슨 짓을 해서라도 그 짓값을 받겠습니다. 선생님! 제발 그애의 얼굴을 보게 해주세요 그것이 안된다면 목소리 만이라도 듣게 해주십시오 이 늙은 애비의 소원이올시다. 선생님!」

3. 서사의 혼종성 : 틈입하는 한국이라는 지역(성)

스릴러와 신파성의 결합

“4.19 혁명 이후 제3공화국이 들어선 63년 사이의 가족 멜로드라마는 이전의 아버지라는 기호가 함의하고 있었던 민족의 역사적 상흔을 어떻게 제거하고 그리하여 제국주의 침탈로 인해 거세당한 아버지를 어떤 방식으로 역사에 등장시켜서 새로운 근대국가의 민족정체성을 수립할 것인가에 집중한다.”

(주유신 외, 『한국영화와 근대성』, 소도, 2001, 53쪽)

- 50년대 후반 멜로드라마 속 여성 주인공
- 60년대 멜로드라마 : 남성의 위계적 질서(아버지-아들-사위)로 재편
- ‘남성 최루물’의 등장 : ‘강한 남성 캐릭터의 부재’ / ‘남성의 좌절’이 특징적

(Kathleen Mchugh, *South Korean Film Melodrama: State, Nation, Woman, and the Transnational Familiar*, Wayne State University Press, 2000, pp.17-42)

4. (범죄) 스릴러 영화의 수용

국경을 넘어 한국에 당도한 ‘스릴러’ 영화 : 1950년대 후반~1960년대 초반의 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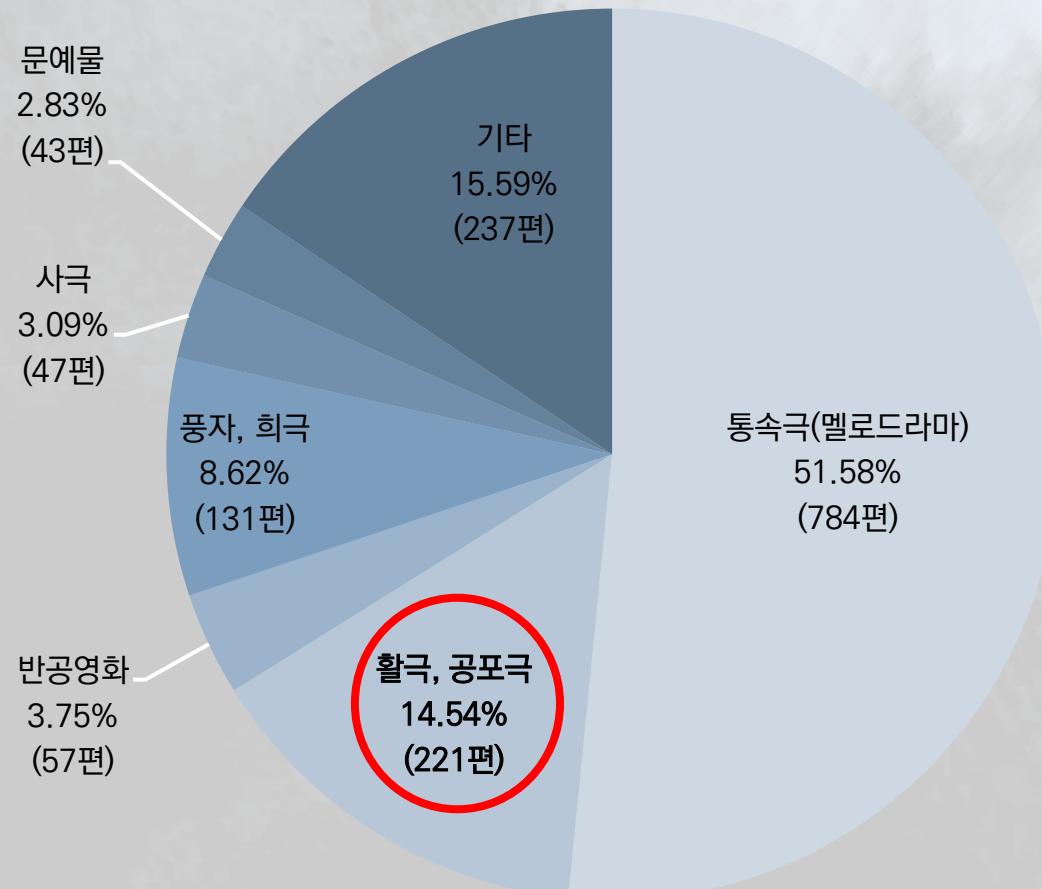
- 1950년대 후반 한국 영화 제작이 활발하지 않았을 시기에 쏟아졌던 서구의 영화가 유입
- 할리우드의 필름 느와르, 프랑스의 범죄영화, 영국의 서스펜스 스릴러, 알프레드 히치콕의 작품들

‘스릴러’ 장르 번성의 기폭제 : 대중 미디어간 경계 넘기

- 1960년대 라디오 드라마 : 방송 추리물의 유행, <검은 꽃잎이 질 때>(1962), <파문>(1964) 등
- 1960년대 중반 이후 TV 드라마 수사극 (TBC <형사수첩>(1965) → 1970년대 <수사반장> 시리즈)
- 1965년 영화 <007> 시리즈의 개봉 및 대유행
- 196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추리소설 붐

4. (범죄) 스릴러 영화의 수용

장르별 제작 편수(총 1520편)



60년대 한국영화의 주요한 작품형식

(‘붐’을 형성한 순서대로)

- 1) 멜로 드라마 영화 (신파영화 포함)
 - 2) 코메디 영화
 - 3) 스릴러 액션영화
 - 4) 역사극
 - 5) 청춘영화
 - 6) 일련의 문제작품 (소위 문예영화 포함)
 - 7) 합작영화
 - 8) 기타 특수한 작품경향. 괴기물, 만화영화, SF영화 등
- (이영일, 『한국영화전사』, 삼애사, 1969, 287-288쪽)

4. (범죄) 스릴러 영화의 수용

실제 범죄와 연결된 (범죄) 스릴러 영화

- 1962년 9월 10일 발생한 조두형군 유괴·실종 사건
- 1963년 10월 12일 발생한 희규군 유괴·살인 사건

『유괴 다룬 오락물』, 『조선일보』, 1963.07.28.

요새 논란이 한창인 해적판 영화의 하나. 원(原) 「시나리오」의 치밀한 짜임새라든가 무게에 비하면 그 밀도가 훨씬 못하긴 하나 그래도 재미있다. 옷을 바꿔입고 놀았기 때문에 김진규 전무 아들 대신 남춘역 운전사 아들이 잘못 유괴되어 그 몸값이 백만 원을 달리는 급행열차로부터 떨어뜨려 주고 아이를 되찾는 데까지가 전반(前半)이고 황해 형사의 「내레이션」으로 범인을 잡아내는 대목이 후반(後半)인데 되도록 처음부터 보는 게 효과적 — (범인을 알면 김이 빠지니까) 범인으로부터의 협박 전화를 받으면 곧 집안을 살샅이 뒤져보는 게 모정이련만 그대로 울고만 있는 서두의 응접실 「신」이 쳐지고 너무도 공개적인 경찰수사 등 납득 안가는 대목도 군데군데 눈에 띄지만 기차의 정사진(靜寫眞)을 요령 있게 쓴 「타이틀백」이라든가 「터널」 속으로 끌고 들어간 「카메라」, 혹은 짧은 「크로즈업」의 「몬타쥬」 등 볼품 있는 「카메라 워크」는 살 만하다. 흑백 「시네스코」. **두형이 찾기 「캠페인」 구실도 할 수 있겠고… 국도극장에서 상영중.**

4. (범죄) 스릴러 영화의 수용

「희규군 사건에 공범 등장」, 『조선일보』, 1964.02.04.

(전략) 용돈이 궁한 이와 황이 돈 벌 욕심으로 범죄단을 만들기로 된 계기가 된 것은 지난해 10월 7일(사건 발생 5일 전) 청계극장에서 상영된 『급행열차를 타라』(조두형군의 유괴 사건을 「모델」로 했음)라는 영화를 함께 보고난 후부터 였다고한다.

「한때는 푸른꿈도 있었다: 희규군 살해범 이복술의 수기 (1)」, 『경향신문』, 1964.02.05.

1963년 10월 7일 친구 손과 함께 청계천 근처 셋방을 얻으러 다니다가, 헤어진 후, 청계극장에서 영화 <급행열차에 타라>를 구경. “황(공범, 황하일)의 집에 들어와 잠자리에서 <급행열차에 타라>라는 영화 줄거리를 이야기했다. 황이 매우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고 이야기하며 잤다.”

4. (범죄) 스릴러 영화의 수용

「여적(餘滴)」, 『경향신문』, 1964.02.04.

그러나 진범과 그 공범자를 가려내는 것으로 ‘희규군의 사건’이 완전한 결말을 본 것은 아닌 것 같다. 이 사건을 거울삼아 다시는 이런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 해야만 되는 것이다. ‘두형’군의 일이 안개에 싸인 채로 있었기 때문에 ‘희규군’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라 해도 과언은 아니다. **이들의 범행동기 가운데는 두형이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급행열차를 타라>에 자극되었다는 것도 한몫 끼여있다.** 그러므로 ‘어린이 유괴’ 사건도 전염병처럼 번져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대서양 횡단 무착륙 비행으로 영웅이 된 ‘린드버그’의 아들 유괴사건 이후로 미국에서는 새로운 법이 제정되었다. 소위 ‘린드버그’법이라 하여 유괴범에게 극형을 내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번 희규군 사건을 계기로 유괴범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엄중한 법을 제정했으면 어떨까 싶다.

4. (범죄) 스릴러 영화의 수용

「영화에 악(惡)의 독소(毒素)」, 『경향신문』, 1964.03.07.

내핍생활을 해야 될 우리 사회에서 내핍이란 배고픈 서민층에게만 해당되는 것 같다.

왜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사회가 날로 심해 갈까. 사회가 잘 조화되지 않은 원인도 많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영화’의 질 문제인 것 같다. 이번 **유괴범 희규군 살해범도 ‘모영화’를 모방**했다니 영화를 보아서 명랑한 사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지러운 오점을 남긴다면 차라리 이런 영화는 값을 들여가며 촬영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국내 영화뿐 아니라 외국영화는 더한 것 같다.** 왜 우리 사회에 적합한 영화만 들여오지 이렇게 사회를 어지럽히는 영화를 수입하는지 당국자의 양식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보는 것도 감수성이 많은 젊은 층 특히 청소년들이다. 당국의 철저한 심사가 있어야 되겠다. (영등포구 오류동 이칠문)

4. (범죄) 스릴러 영화의 수용

구로사와 영화 <천국과 지옥>의 모방 범죄

- 영화 공개 다음날부터 도쿄, 고베, 아이치에서 유괴사건 발생
- ‘요시노부(吉展) 유괴사건’
- 범인 고하라 다모츠(小原保)는 집 근처에서 놀고 있는 무라코 요시노부(4세)를 유괴 후 몸값 요구 전화를 해서 유괴사건 전환, 범인의 음성 공개. 그러나 경찰 수사의 허점을 보이며 사회적인 비판
- 영화 수법을 모방한 범죄가 이어지자 구로사와에 대한 영화 상영 중지요구
- 일본 사회는 점차 ‘유괴’를 흉악한 범죄로 인식, 법 개정을 요구하기도 : 1932년 미국 린드버그 사건 예시. 일본은 요시노부 유괴사건을 계기로 아동유괴범에 엄벌주의를 입법화

(양아람, 「1990년 경찰소설 작가 에드 맥베인(Ed McBain)의 방일과 일본의 에드 맥베인 수용: 미국 사회의 범죄, 차별, 혐오」, 『서강인문논총』 65,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22. 225-226쪽)

5. 나가며